



‘부르고뉴 그랑 크뤼 최다 보유 지역, 쥬브레 상베르탱’

## 도멘 뒤 끌로 프랑탱 쥬브레 상베르탱 레 무로

Domaine du Clos Frantin Gevrey Chambertin Les Murots

지역	프랑스 > 부르고뉴 > 꼬뜨 드 누		
포도품종	피노 누아 100%		
알코올	13%	용량	750ml
등급	AOC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잘 익은 레드베리와 블랙베리의 풍부한 과실감과 함께 약간의 스파이시함과 우드향을 느낄 수 있다. 오랜 기간의 병 숙성 후에는 가죽이나 머스크 향도 느낄 수 있다. 입 안에서는 부드러운 탄닌감으로 벨벳과 같은 질감이 느껴지며, 뛰어난 구조감과 밸런스가 인상적인 와인으로 처음 느껴지는 과실향이 피니쉬까지 이어진다.		



### 제품설명



흔히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부르고뉴의 와인 명산지인 쥬브레 상베르탱은 부르고뉴의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그랑 크뤼를 가지고 있어(그랑 크뤼 9개 소유) 부르고뉴의 뿌이악(Pauillac)이라고 불리곤 한다. 상베르탱(Chambertin)은 나폴레옹이 가장 즐겨 마시던 와인으로 내 사전에 와인은 상베르탱 뿐이라는 말로 유명하며, 삼총사의 알렉산더 듀마는 그 어느 것도 한잔의 상베르탱을 통해서 보이는 장미 빛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고 극찬하였다.

레 무로는 경사면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회질과 자갈이 섞인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특한 토양의 특성으로 배수가 뛰어나며, 이로 인해 무르익은 포도를 수확할 수 있다.

### 수상내역



2022빈티지 버그하운드 Burghound.com 91점  
 2019빈티지 버그하운드 Burghound.com 91점  
 2017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92점

### 와이너리



1831년 Bernard Bichot에 의해 설립되어 가족 소유로 경영되어 온 알베르 비쇼(Albert Bichot)는 현재 6대째 자손인 알베릭 비쇼(Alberic Bichot)가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부르고뉴 와인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베르 비쇼는 부르고뉴 지역 4위의 업체이다.  
 매출의 70%를 전 세계 100여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부르고뉴 지역의 수 많은 와인들을 우수한 품질로 생산해내고 있는 노하우에 기반한다  
 알베르 비쇼는 총 6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와인메이커가 각각 다른 와이너리에서 각각의 떼루아를 고려하여 양조하며, 이것은 알베르 비쇼만의 특별한 철학이다  
 알베르 비쇼는 스웨덴 왕실 공식 와인 공급업체이며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서빙 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